

광주, 4일 연속 코로나 100명대 초비상...전국은 감소세

'집단 감염' 요양·정신병원 코호트 격리...목포·나주 확산세 여전

광주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면서 3일 연속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서 10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는 9일(133명), 10일(176명)에 이어 사흘 연속 하루 확진자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모 요양병원에선 이날도 관련자 1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90명으로 늘어났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병원 11층에 이어 12층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나오자 2개 층을 동원 집단(코호트) 격리하고 환자들을 재배치했다.

최근 35명이 확진된 동구 모 정신병원도 5개 층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은 환자 395명 중 63명, 정신병원은 환자 168명 중 32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발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광산구 초등학교에서 5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고, 남구 모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에선 병원, 초등학교, 제조업체, 복지시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최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연일 수십 명에 이르면서 대규모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에서도 이날 오후 5시 현재 14개 시군에서 64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6938

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목포 22명, 나주 16명, 영암 5명, 여수 4명, 장성 3명, 순천·담양·해남·진도·영광 각 2명, 광양·화순·완도·신안 각 1명이다. 감염 경로는 자가격리 중 검사 14명, 유증상 검사 12명, 타지역 접촉 관련 12명, 접촉자 검사 중 11명, 해외 입국자 3명, 진료 전 검사 2명, 수동 감시 중 검사 1명 등이다.

전국에서는 11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097명이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67만483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2813명, 해외유입 284명이다.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신규확진자는 4441명→4125명→3713명→3509명→3372명→3005명→3097명으로 하루 평균 약 3609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1일 오전 광주 남구 선별진료소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정공원 '치유', 운천공원 '쉼과 여유'

광주시, 호남대 공공기여금 204억원 투입 명품 근린공원으로 조성

광주시가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화정-운천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최초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도시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해 화정근린공원 10만6611㎡과 운천근린공원 2만1465㎡에 대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 조성에는 2019년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금 204억원이 투입된다.

공공기여금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개발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화정근린공원은 2007년 합평군으로 이전한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편입되면서 2만1000㎡에서 10만6611㎡으로 면적이 확대됐다. 이후 일부 시설을 정비하고 개설했으며, 많은 시민이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5·18 사적지로 지정된 병원 분관 등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은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되 일부 경작지 등 훼손된 구간은 녹지와 시민 쉼터로 조성해 역사와 기억과 상처를 품어 안은 '치유의 공원'으로만

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화정근린공원은 2007년 합평군으로 이전한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편입되면서 2만1000㎡에서 10만6611㎡으로 면적이 확대됐다. 이후 일부 시설을 정비하고 개설했으며, 많은 시민이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다는 계획이다.

운천근린공원은 서구 쌍촌동 주택가 밀집지역 내 도심 공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가족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한다. 또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공간을 제공해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들 2개 공원에 대해 2020년 6월 실시 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오는 2월부터 토지보상 등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해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석용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공공기여금을 투자하는 광주시 최초의 공원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최대한 기존 숲을 보존하면서 이용률이 높은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을 위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월 뮤지컬 '빛의 결혼식' 희곡·악보집 발간

전용호 글·정유하 편곡... '임을 위한 행진곡' 탄생 자료도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서는 슬픈 결혼식이 거행됐다. 80년 5월항쟁 당시 최후까지 전남도정을 지켰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에 헌신하다



별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이었다. 당시 영혼결혼식을 소재로 만든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의 희곡·악보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용호 소설가가 발간한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희곡·악보집은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탄생 과정과 관련 자료도 함께 수록돼 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전 작가는 5월 항쟁 당시 투쟁위원회 홍보팀으로 투사회보를 제작, 배포하다 투옥된 바 있다.

전 작가는 이번 희곡·악보집의 모태가 된 노래 '노래꽃 빛의 결혼식' (1982년·카세트 테이프) 제작 경위도 소상히 설명했다.

전 작가가 따르면 1982년 2월 영혼결혼식이 있던 후, 그해 4월 광주 운암동 황석영 소설가의 집에 문화 활동가들이 모였다. 윤상원·박기순 열사를 기리기 위한 '노래꽃 빛의 결혼식'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가사를 만들고 대본을 작성한 황석영 외에도 노래를 작곡한 김중률, 노래를 부르기로 했던 오정복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3-4시쯤 시작된 연습이 밤까지 이어졌는데 자정이 넘어

서 녹음을 마쳤어요. 새벽 5시쯤 완성품을 만든 후 모두 잠에 들어졌고 아침에 일어났죠."

당시 7곡 가운데 마지막 곡으로 삽입된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그렇게 제작된 28분짜리 테이프는 전국에 배포됐고, 하반기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입소문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다.

전 작가는 이듬해인 1983년부터 망월동 5·18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헌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노래꽃 빛의 결혼식'을 바탕으로 대본을 늘렸다. 그리고 2017년 민중가요를 부르는 푸른솔합창단 장단을 계기로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이 초연됐다.

당시 민중가요를 연구한 정유하 박사가 노래를 편곡하고 2·3곡의 곡을 새로 작곡했다.

이후 2018-2019년까지 대본과 노래를 수정하고 늘리면서 공연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김민기의 '공장의 불빛' 작고한 정세현(범블스님)의 '광주출전기'도 함께 불리었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된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희곡·악보집'을 위해 정유하 작곡가가 다시 3곡을 추가 작곡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안·보성·순천갯벌, 갯벌 글로벌 관광상품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보성·순천의 갯벌을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판매해 청정 전남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된 신안, 보성·순천 갯벌은 1160.71㎢ 규모로, 안정적이고 두꺼운 퇴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조류의 도래지로 2150종의 진귀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특히 탄소 중립이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한 가운데 갯벌은 친환경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갯벌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하나투어·ITC, 트레이지(TRAZY)와 협업해 청정 전남의 갯벌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상품 등 5건을 기획, 갯벌 체험이 가능한 4월부터 본격 판매하기 위해 글로벌 홍보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금호타이어 땅 일부 팔았다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전체 부지의 약 30%가 일반공업지역인 데다, 비행안전제5구역(전소)으로도 지정돼 있어 실제 세대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해당 부지가 주택단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부에선 이번 금호타이어측의 부지 매각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가 추진하려는 '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개발 계획 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사 안팎에선 이번 부지 매각을 놓고 금호타이어측이 직권 주자장 부지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광주공장 부지 매각 및 개발사업을 비롯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아 샅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금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금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조선이공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 초빙분야**

구분	학과	초빙분야 (세부전공)	인원	세부사항
정년	보건교과행정과	의료정보 (병리영상)	1명	- 의료정보관련 이론 및 실습과목 * 보건정보관리사 면허소지자(필수) * 실용영어 및 교양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
		사회복지과 (이동·정신)	1명	- 가족상담 및 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문화 -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합계			2명	
- 지원자격**
가. 우리대학교 「교원채용규정」 제4조(임용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나. 초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서류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2022.01.24(월) ~ 01.27(목) 09:00~17:00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022년 01월 27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한 응시원서 중 제출서류 미비사항은 접수 취소함.
다. 접수처: (61453) 광주광역시 중구 필문대로 309-1 조선이공대학교 교무인사처 교무팀(대학본부 1층)
- 제출서류**
가. 교원임용 지원서 1부 (소정양식)
나. 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 각 1부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 증명서는 담당직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한글 번역 우 증빙하여 제출
라. 대학·전문대학 전임교원 경력자인 경우
-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확인서
마. 산업계 경력자인 경우(학사학위 취득 후 동일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
-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
- 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업체별 각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산업계 경력 인정하지 않음
바. 민간산업계 근무 경력자인 경우(추가)
- 산업계 업종확인 가능한 서류로 산업체별 각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근무한 산업체가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임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산업체별 각 1부 (근로당시의 산업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통보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 자기소개서, 학과발견계획서 각 1부 (소정양식)
아. 연구실적록·목록, 연구실적 요약문 각 1부 (소정양식)

자. 연구실적록·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 인쇄물(학위논문 포함) 각 1부
차. 연구실적록·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 파일(학위논문 포함 USB로 제출) 각 1부
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사물에 한함. 재직중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다, 마, 바 항목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하나의 초빙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임용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로 확인되거나 신세검사,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다.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라. 학위논문은 제외한 연구실적은 지원자가 지정한 10명까지의 대표실적만 심사하며, 10명 이상 제출한 경우 연구실적 목록에 기재된 순서로 심사함 (지서는 2건까지만 인정).
- 정년제 전임교원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내(2019.01.12~2022.01.11)에 발표(출판)된 연구실적만 인정함.
- 연구실적록(연구실적증명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기재 등)로 판단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마. 정년제 전임교원인 경우 공개강의 주제와 심사대상자는 공개강의신청서 2일 전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하며, 외국어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함.
바. 교원채용 진행방법 및 제출서류 양식 등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확인바람.
사.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반환요금은 도차후 지급으로 함 (반환청구 신청절차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아. 임용 후 광주광역시 및 인근지역(30km 이내) 거주 가능해야 함.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규정 및 교원채용관련위원회 의결에 따름.
- 임용조건**
가. 임용직위: 조교수
나. 임용예정: 2022년도 1학기 임용(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처 우: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제5장 연봉제에 따름.
- 문의처**
가. 담당부서: 조선이공대학교 교무인사처 교무팀
나. 전화번호: (062) 230-8040, 8044
다. 팩스번호: (062) 234-8304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양식은 조선이공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st.ac.kr>) 전임교원 초빙공고에 참조하기 바람.

2022. 01. 12.
조선이공대학교 총장